

피에타 (이탈리아어:Pietà) 슬픔 비탄



사진1- 피에타(바티칸)

적어도 그리스도교(모든 종파 포함)신자들이라면 '피에타' 라는 단어는 몰라도 성모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조각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너무나도 유명한 이 대리석 조각상(사진1)은 르네상스라는 한 시대의 걸작이란 의미를 떠나 온 인류의 정신적 신앙적 예술적 가치를 모두 지닌 인류의 역사적 유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성모 칠고는 성모 마리아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일곱 가지 슬픔 또는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 중세 이후 그리스도교 미술계에서는 이 내용을 늘 작품의 소재로 삼아 왔다. 성모 칠고의 내용 중에 특히 여섯 번째 고통인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 성모님에게 안기는' 이 주제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게 된다. 고금에 수많은 작가들이 이 주제로 회화와 조각으로 형상화 했지만 그 중에도 발군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사진1)이다. 이 작품으로 불과 24살짜리 풋내기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작품에 나타난 그 엄청난 디테일과 아름다움에, 시대를 앞선 예술성은 물론, 미켈란젤로의 신앙심까지 엿볼 수 있다. 청년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작품의 완성도는 조물주의 솜씨와도 비견될 정도다. 사실 그는 한 때 그의 창작행위를 하나님의 만물 창조와 동일시 할 정도로 오만한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나이에 비해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본 당대의 사람들도 믿기지가 않아 다른 작가의 작품일 것이라는 루머가 돌아 미켈란젤로는 조각상 성모님 옷깃에 자신의 싸인을 새겨 넣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봉헌된 작품이 자신 개인의 명예를 위한다는 생각에 바로 후회를 한다. 그 이후에 그는 어떤 작품에도 싸인을 넣지 않았다.

그의 유명한 다른 작품에 대해선 너무 지면이 좁아 다음으로 미루고 그의 마지막 작품을 소개한다. 그는 24살에 자신의 존재를 이 작품 '피에타'(바티칸)로 세상에 알렸다면 마지막도 역시 '피에타'(론다니니)로 작품을 넘겼다. 90세 가깝게 살며 독신으로 지냈던 그가 마지막으로 손을 댄 작품도 같은 주제의 작품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8년 동안 손을 댔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 작품(사진2)은 미완성으로 남았다. 첫 번째 '피에타'와는 다른 손길에, 같은 작가의 솜씨로 보기가 힘들 지경이다.

보통 피에타는 대부분 성모 마리아의 무릎 위에 예수가 누워있는 장면(사진1)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마지막 작품은 특이하게도 둘다 서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의 다리는 힘없이 처져있고 마리아가 부축하는 것 같지만 다시 보면 마리아가 예수의 등위에 얽혀있는 듯하다. 게다가 두 인물이 별로 중력을 느끼고 있지 않은 상태로 예수와 마리아가 한 몸이 된 모습이다. 특히 과감한 생략으로 보이는 미완성 부분은 현대 조각을 보는 듯 하다. 예술의 경지를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노령의 미켈란젤로의 체념처럼 보이는 해탈의 경지가 느껴진다. 본인 스스로도 완성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무력감(?)에서 오히려 절대자에게 순응하는 신앙인의 한없이 낮은 겸손의 자세가 느껴진다.

그는 말년에 자신의 작품을 파괴했다. 완벽을 추구했던 그는 밀그림적인 일체의 스케치도 남기지 않았다. 후대의 유명한 조각가 로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영원을 추구 했지만 예술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그 특유의 고집으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온 육신과 정신 그리고 그의 영혼마저 불태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지만 스스로는 자신이 성취한 예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글/김웅배 안드레아

사진2- 피에타(론다니니)

주님 공현
대축일

2023년
01월 08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의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동방박사의 경배>, 보티첼리
1475-76년, 우피치 미술관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님 송별미사>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미국에서 5년의 임기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신부님께서 앞으로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이사야서60,1-6
- #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3,2,3,4,5-6
- # 복음 환호송 마태 2,2 참조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복음 마태오2,1-12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백운택(어거스틴) 신부님
- 이석중(스테파노)
- 추성태(바오로)
- 김진철(요한)
- 김경희(수산나)
- 김명자(헬레나)
- 이동현(요셉)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가족, 썸머셋 구역
- 가족
- 가족
- 가족
- 가족
-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노스브런스위 구역, 메타천 구역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 최승웅(마카엘) 부제님
- 노스브런스위 구역원 가정
- 메타천 구역원분들
- 염은미(클라라)
- 김종숙(마리아)
- 오경선(원선시오) 가족

- 노스브런스위 구역
- 노스브런스위 구역
- 노스브런스위 구역
- 허정(아나스타시아)
- 가족
- 민 엘리자벳
- 박재영(요아킴), 서경호(대건안드레아), 이용문(안드레아) 가족

- 오용덕(헨리코) 가족
- 허기욱(바오로)
- 하준석(마태오)
- 채미영(데레사) 가정
- 임 마르코, 스텔라 가정
- 강민선(베로니카) 가정
- 윤준희(안드레아) 가정
- 이금주(베드로), 이보현(요안나)

- 박재영(요아킴)
- 박재영(요아킴)
- 박재영(요아킴)
- 김리오(레오) 가족
- 가족
- 구윤미(올리아)
- 가족
- 채희백(바오로), 채미영(데레사)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47명)..... \$1,416
- 2차 헌금 (Together in Charity)..... \$521
- 교무금..... \$1,730

| | | |
|-----------|-----------|--------|
| 이금주(1) | 백상현(1) | 박병태(1) |
| 박정훈(6-12) | 한철희(1-2) | 이광재(1) |
| 박락준(1) | 김성일(12-1) |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
|------------|-----------|
| 정영철(프란치스코) | 하건철(안토니오) |
| 오용덕(헨리코) | 오경선(원선시오) |
|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태오) |
| 박화성(헬레나) | 곽 율리안나 |



2차 헌금

- 1월 8일: 유타리티
- 1월 22일: Foundation for Catholic Education Collection (메타천 교구내 초등학교~고등학교 학비 지원)

2023년 1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 1월 8일 주일 미사 후 제대 구유 해체 작업과 1월 14일 토요일 9시 성당 외관 조명 해체 작업을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1월 8일(일) 미사후 친교실 회의실

구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1월 15일(일) 미사 후 친교실

럿거스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1월 22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2022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설날 합동 위령미사 신청

- 1월 22일(주일)은 설날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위령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 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커피 쿠폰 1장 구매시 \$2
- 커피 쿠폰 12장 구매시 \$20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태오 2,11)

제 1독서 이사야서60,1-6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3,2.3ㄴ.5-6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 복음2,1-12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불러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님을 보내드리며...

Father Stephen Namwoong Lee,

He has a smile like a little boy, pure, innocent, without anything to hide.

He arrived in Edison in late February 2018 from the Korean diocese.

He was a new pastor to the Korean Community of Transfiguration of the Lord church in Edison and the community was preparing to move Our Lady of Mercy in South Bound Brook. He was new to the Korean Community, he was new to Our Lady of Mercy and he was a young priest, only 5 years in priesthood.

Later, I found that behind his innocent smile, there was a wise old man inside of him with love and wisdom.

He worked hard, he did not care about english as his second language, he resolved all obstacles with his smile. He offered the same compassion to the Korean Community with his innocent smile.

Now there were shepherds in that region living in the fields and keeping the night watch over their flock. (Luke 2:8)

After two years came the pandemic and everything was stopped and turned upside down, it was something no one ever experienced. He was scared and confused like everybody else, but he stood firm and he was like a shepherd keeping the night watch over his flock nearby Bethlehem.

During his 5 years in ministry half of them were during the pandemic era, in spite of all the problems he finished the parking lot and Mary's Garden, of course with great help from the brothers and sisters of Our Lady of Mercy.

And now the time has come to depart, I'd like to ask one thing to you, Father Lee, Don't ever lose your smile and thank you for your smile that you gave us.

May God Bless you and your ministry.

Deacon Seock Ro Youn

신부님은 어린 소년처럼 순진무구하고, 숨길 것이 없는 그런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2018년 2월 말, 한국 대전교구 소속으로 에디슨 성당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Transfiguration of the Lord 성당 에디슨 한인 공동체의 새 사제로서, 우리 공동체는 South Bound Brook 에 있는 Our Lady of Mercy 성당과 통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인 공동체의 새 사제이자, Our Lady of Mercy 성당의 새 주임 사제로서 불과 신부가 된 지 5년밖에 안 된 젊은 신부님이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신부님의 천진난만한 미소 뒤에는 사랑과 지혜를 가진 현명한 노인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열심히 일하셨고, 영어를 제2외국어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며, 미소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 넘었습니다. 천진난만한 미소로 한인 공동체의 어려움을 모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루카2,8)

2년 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모든 것이 중단되고, 모든 일상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겁이나고 혼란스러웠지만, 신부님께서서는 곳곳이 서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밤새 보살피는 목동되어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사목하시는 5년동안, 임기의 절반은 팬데믹 위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신부님께서서는 교우 형제/자매들의 큰 도움으로 주차장 보수 공사와 성모 정원 조성 공사를 마치셨습니다.

신부님, 이제 출발할 때가 되었으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절대 웃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미소에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과 신부님의 새로운 소임에서의 사목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제 윤석로 이나시오